

[#2. “현대시의 본질” :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 것인가.]

※ 본 자료의 저작권은 <김승리 국어 연구소>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이 무단 사용 및 게재 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 문학(현대시, 고전시가)을 공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 문학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확립. (4할)

시 문학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시적 대상**은 무엇인가? (작품 속에서 화자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무엇인가?)

b. **시적 상황**은 어떠한가? (작품 속의 화자 혹은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c.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 ‘화자의 태도’를 찾기 전에 앞서 주의해야할 점은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는가(‘나’의 등장),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 **제목과의 연관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 여기서 ‘제목과의 연관성’이란 **“상징성”, “시상의 집중”**이라는 측면과 깊게 연관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적 개념어의 확립. (4할)

=> 비문학과 달리, 문학에서는 ‘개념어’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시 문학에서의 ‘표현상 특징’ 문항, 소설 문학에서의 ‘서술상 특징’ 문항입니다.

‘사전적 정의’와 더불어 ‘기출 문항에서 해당 개념이 적용된 작품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특수성’에 근거한 고전 시가의 정리. (2할)

=> 고전 시가의 경우, 현대 우리말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중세 국어(혹은 고대 언어)로 쓰여 있는 작품들을 현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전 시가 공략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작품을 잘 읽어 내는 능력이 있어도 현대어로 번역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이죠.

=> 또한 고전 시가는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에 따른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시의 지배적 가치관, 작품을 쓴 사람의 신분 등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고전 시가는 ‘주제’, ‘상징’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현대시와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정리’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현대시와 접근법이 동일합니다. (이후 고전 문학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지만 이게 진짜 전부입니다.
직접 작품을 분석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현대시]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은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재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며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나)

텔레비전을 끄자

[A]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B]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C]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D] 브라운관이 뿜어낸 험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E]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우리는 항상 “제목”을 먼저 보고 작품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 제목 : ‘아침 이미지’



시적 대상 및 시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시적 대상 : ‘어둠’, ‘아침’

=> 어둠 : (새, 돌, 꽃)을 낳고 아침이 되면 돌려줌

=> 어둠 vs 아침 (대조 관계)

- 시적 상황 : 어둠이 온갖 물상을 돌려주고 땅 위에 굴복한 뒤, 즉 아침이 온 뒤 ‘물상들’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즐거운 지상의 잔치가 벌어지며 세상이 개벽을 함(아침 이미지)

- 화자의 태도 : 화자(‘나’)가 드러나지 않아 애매함.

=> ‘즐거움’이라는 정서가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적어도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제목 :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시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음

=> 화자가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시적 대상 : ‘풀벌레(소리)’

- 시적 상황 : 화자가 밤에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음

=>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vs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

=> 화자가 주목하는 것은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

- 화자의 태도 : 화자는 지속적으로 ‘작은 (풀벌레) 소리’를 생각하고 있음

=> ‘나’는 표면에 드러나지만 ‘정서’가 명확하지는 않음

굉장히 성의 없이 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이만큼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이전부터 강조했듯이 우리는 시험장에서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4행에서 ‘어둠은 온갖 물상(物像)을 돌려주지만’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가 맞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화자는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역시 **적절**합니다.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 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가)는 어둠이 아침이 되어 온갖 물상을 돌려주고 난 뒤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나)는 화자가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어둠이 온갖 물상을 돌려주었고, (나)에서는 ‘어둠’이 방 안 가득 들어오면서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되므로 분위기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가)에서는 ‘어둠’이 ‘새, 돌, 꽃’을 낳으므로 생산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스스로 땅 뿔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가)에 한해서는 해당 선지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 ‘밝음’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텔레비전’ 밖에 없고, ‘어둠’이 텔레비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며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사람들이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람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를 두고 사람들이 ‘노동의 고단함’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며 뒤에 나오는 ‘즐거운 지상의 잔치’로 보아 노동이 ‘고단함’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물상들이 새로 태어난 물상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기존의 물상 vs 새로 태어난 물상’로 볼 수 있는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물상’은 어둠에 의해서 태어났고, 아침이 되자 어둠이 들려준 것뿐이므로 ‘새로 태어났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1번과 2번에 비해 애매한 선지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최적의 사고과정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정답이라고 확신할 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지상에 있는 사물들(물상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정답)

⑤ ‘세상은 새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새벽’이라는 단어의 어감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라는 부분이 적절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혼란을 겪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 또한 사물은 어둠에 의해서 탄생했고, 어둠은 아침이 되면 사물들을 ‘돌려주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형태로 변화한다는 부분이 맞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풀벌레 소리’는 ‘텔레비전을 꺼야’ 화자가 들릴 수 있는 소리이므로 화자가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큰 울음’ → ‘들리지 않는 소리’로 화자가 관심을 두게 되는 소리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므로 **적절**합니다.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은 ‘풀벌레’를 의미하고, 풀벌레들은 화자 때문에 소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그 울음소리가 화자에게 왔다가 되돌아간 것이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성찰’이라는 단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성찰은 단순히 ‘반성’뿐 아니라 ‘화자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그 울음소리들’을 인식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 살펴본 화자의 모습을 통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 화자는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을 들이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그 소리들’은 소리이므로 허파로 들이쉴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화자가 ‘깊숙이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현대시]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꽃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잦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董)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 예제로 : 여기저기로

(나)

㉥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름의 ㉨ 집 안에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섬뜩한 냉
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매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
서 오셔서 콩깍지로 균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
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
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
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
다 팔매질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낯은 집**』 -

- 제목 : '고향 앞에서'
=> 화자가 자신의 고향 앞에 위치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시적 상황과 연관 & '고향'이 시적 대상이라는 것 또한 유추할 수 있음
- 시적 대상 : 고향
- 시적 상황 : 화자가 고향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음.
- 화자의 태도 : '애매함'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조금 분석해 보면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음.
=> 화자는 고향 앞에 서 있는데 장꾼들에게 '고향을 보셨나이까'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 현재 고향에 못 들어가고 있거나, 고향을 못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목 : '낯은 집'
=> 시적 대상을 '낯은 집'으로 볼 수 있음
=> '슬레이트 흙담집'
=> 화자의 고향집
- 시적 대상 : 고향
- 시적 상황 : 화자가 고향에 돌아옴.
- 화자의 태도 : '낯설어' 하고 있음.
=>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 하고 있음.

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가)의 화자는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손을 쥐면 따듯할 것이다.'는 '친근감을 기대'하는 것과 충분히 대응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나)의 화자는 '고향집'에 방문한 상황인데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고향집 마당에 들어섰으므로' '익숙했던 공간(고향집)'에 대해 '낯선 느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정답)

=>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더라도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첫째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가)의 '고향'이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조상'과 관련된 내용은 '간간이 쟁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라는 부분인데 '조상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설명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자는 '고향'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장꾼들에게 자신의 고향을 '보았는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 한편 (나)의 화자의 고향은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은 맞습니다. 이는 일당으로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자가 '고향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역시 부적절합니다.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히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작품 (가) '여전히 각박한 인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자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고향에 '어설퍼하며'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인심'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역시 부적절합니다.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작품 (가)에서 '떠돌아다니는'것은 화자가 아니라, '장꾼들'입니다. 화자가 '떠돌아다니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편 작품 (나)에서 '공장 노동자로 전락해 버린 농민'은 '화자의 아버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삶의 무상함(덧없음)"이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작품 전체의 분위기가 다소 우울한 느낌이 있으므로 "확실히 없다"고 말하기도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므로 역시 부적절한 선지입니다.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 (가)의 '고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농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애매하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화자가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 적은 확실히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울렁울렁'은 '울음이 터질 듯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여러분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의미를 들어도 마치 '창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내려간다'에서 확실히 '시각적 묘사'가 존재하므로 적절한 선지로 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애매했다면 당연히 Pass!

② ㉡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화자는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묻는 형식'으로 표현했으므로 적절합니다.

=> 설의적 표현 :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짐짓 의문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법. (사실 이미 결론은 모두 정해져 있음)

③ ㉢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으로 토로하고 있다.

=> 장꾼들이 '이리저리 떠도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고향에 가지 못해 서러워 함"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는 '화자'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정답)

④ ㉣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객관화란 '자기에게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생각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의 화자는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모를 '농부 내외'라고 표현하고, 자신의 여동생을 '그들의 딸'로 표현하고 있음으로 적절합니다.

⑤ ㉤ : 쓸쓸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화자는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자의 집 안의 정경은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풍한 냉들'이기 때문에 화자가 느끼는 심정인 '어색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지문과의 대응지점 -----

(가)와 (나)의 화자는 <보기>에 의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귀향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아야 하고, 이들의 기억 속의 고향은 ‘평화롭고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의 화자의 고향은 ‘변해 있는 고향’이 되었고, (나)의 화자의 고향은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는 고향’이 되었기 때문에 (<보기>의 “A or B” 문장 구조!) 이들의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가)의 화자가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한다.’는 것은 해당 부분인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는 내용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자가 ‘공감하는지’ 여부는 확신을 갖기 어렵고, 화자가 ‘변해 있는 고향’을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정답”이라는 확신을 얻기는 어려웠겠으나 ‘부적절한 것 같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보기>와 지문의 대응을 통해 확실히 확인 가능한 내용이므로 **적절**합니다.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들의 궁핍한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자는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나)의 화자에게 고향은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되면서 그와 동시에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자는 고향을 “가족애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기도 하므로 **적절**합니다. 선지 ③번과 반대되는 내용을 드러내므로 자칫하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으나 <보기>에서 (가)와 (나)의 화자에게 ‘고향’은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 역시 지문과의 대응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합니다.
=> 이와 동시에 ②~⑥가 확실하게 지워지므로 **정답은 ①번**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시문학이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으나, 오려낸 지문 자체를 읽는 난이도는 비문학에 비해
오려낸 평이하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비문학과 동일합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매대한 선지”는
일단 넘어가야 합니다.
시를 읽는 일정한 습관을 위해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